SECTOR
UPDATE

2026. 3. 9.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

홍진현 선임연구원
jinhyun.hong@samsung.com

디지털 자산 시리즈 ⑥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기술이 만드는 금융 변화

삼성증권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기술이 만드는 금융 변화

2026년 초부터 부각된 Clarity Act를 둘러싼 논쟁은 업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Clarity Act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니라, 향후 크립토 금융 인프라의 통제권을 둘러싼 전통 은행권과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주요 쟁점처럼 부각되었지만, 실제 핵심은 감독기관 재편과 규제 프레임 전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CFTC 관할로 이동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예치(스테이킹)·대출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IB·브로커리지·자산관리 영역까지 경쟁 압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 규제를 담당하는 SEC보다 상품·파생시장 성격의 CFTC 관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①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탈중앙 구조로 유통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규제나 독점을 통해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② 강경 규제를 통해 시장을 억제하는 접근은 달러 영향력 약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정책 흐름 역시 단순 규제보다는 '제도권에 편입된 개방'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GENIUS Act 등 사례에서 볼 때, 미국의 핵심 전략은 달러 패권 강화와 자본시장 지배력 강화입니다. Clarity Act 논의에서도 유사한 국가 전략 중심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토큰화 자산과 온체인 결제를 활용해 글로벌 유동성을 자국 금융시장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Agent 경제가 확산될 경우 초소액·고빈도·자동 결제가 급증하면서, 카드·계좌 기반 금융망은 처리 속도·비용·자동화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간 거래와 B2A(Business to Agent) 구조가 확대되면 인간 개입 없이 결제·정산·검증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수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블록체인이 유일할 것입니다. x402는 HTTP 통신 단계에서 결제 요청과 지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Agent 환경에 특화된 프로그램형 결제 프로토콜로, AI Agent 경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제도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가능성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필요성은 자명합니다. ① 가상자산 및 토큰화 경제에서 결제 기준 통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고착화될 경우 통화주권이 잠식될 수 있고 ② AI Agent 확산 등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가 표준화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비용이 높은 전통 결제망에 묶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신속한 제도화와 사용처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 논의는 발행 주체 제한, 특히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처 확보 관련해서, USDT·USDC 외 소형/후발 스테이블코인들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들은 기관 금융, RWA, DeFi 거래소 등 금융 네트워크에서 먼저 유동성을 확보한 뒤 해당 네트워크의 자금 이동을 담당하는 정산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유동성을 축적하였고, 결제 영역으로 점진적 확장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금융 네트워크 기반의 초기 유동성 확보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 높습니다.

REPORT
CONTENTS

01 미국, Clarity Act 논쟁 4p

02 AI Agent 10p

03 원화 스테이블코인 14p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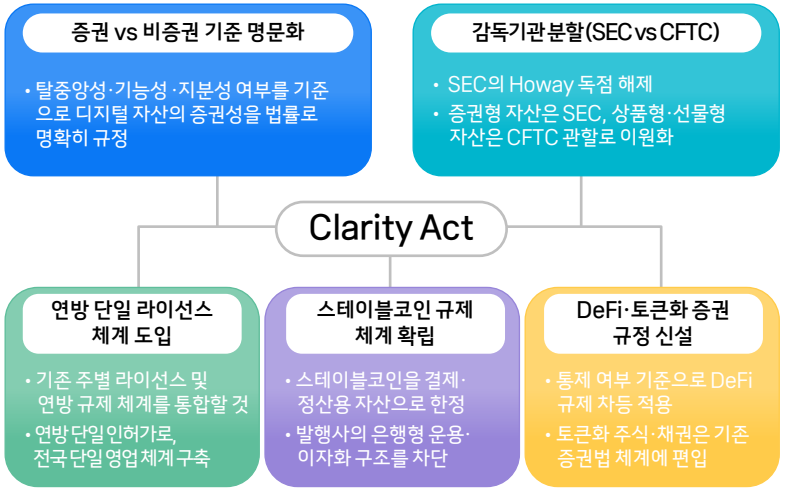
미국, Clarity Act 논쟁

미국, Clarity Act 논쟁

전통 금융 vs 크립토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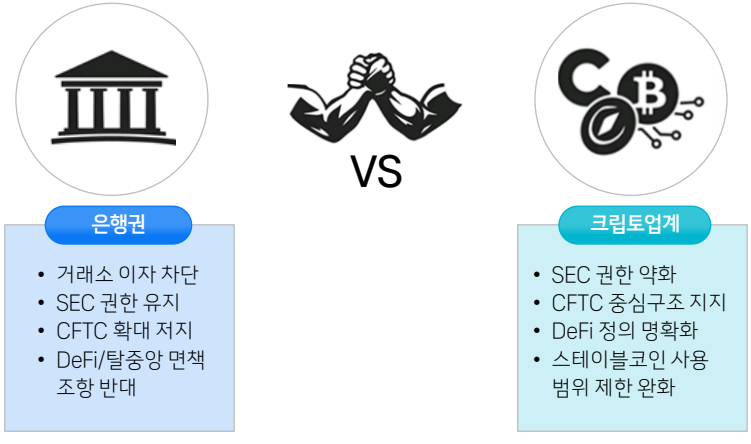
- Clarity Act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 규제 논쟁이 아니라, 크립토 금융 인프라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은행권·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증권·비증권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감독 권한을 SEC와 CFTC로 분리해 규제 체계를 재편하는 데 있음
- 언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문제가 부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독기관 재편과 규제 프레임 전환이 법안의 본질적 쟁점
- 은행권은 CFTC의 소비자 보호 역량과 금융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소 이자는 예금보험·자본 규제 없는 무인가 예금 상품이라고 비판
- 크립토업계는 탈중앙·기능성 기반 자산의 비증권 인정과 소송 중심 규제 종식을 요구하며,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통한 산업 확장을 핵심 논리로 제시

Clarity Act(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법안) 핵심 내용



자료: Congress.gov, 삼성증권

Clarity Act에 대한 은행권과 크립토업계의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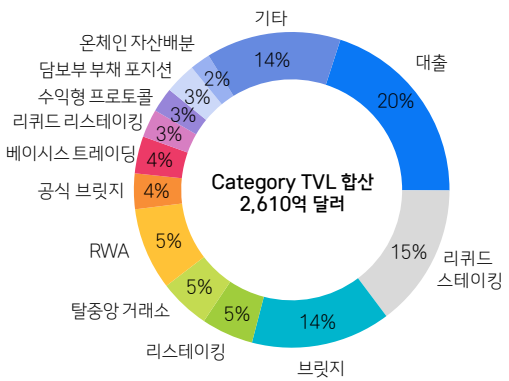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각 사, 삼성증권

미국, Clarity Act 논쟁

경쟁 구도가 본질적으로 불균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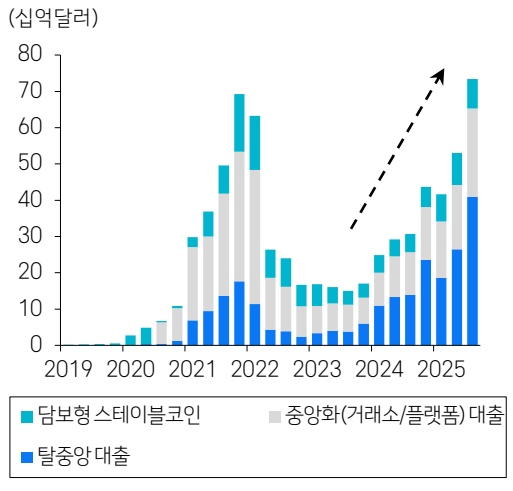
- 가상자산 시장이 CFTC 관할로 전환될 경우, 전통 금융권은 이자·리워드 문제를 넘어 금융 중개 기능 자체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큼
- 직접적 타격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활성화된 예치(스테이킹)·대출 시장 영역. 중장기적으로는 IB·브로커리지·자산관리 영역까지 잠식될 가능성 존재
- 전통 금융사는 BIS 규제, 예금보험료, 자기자본 비율 등 규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크립토 플랫폼은 규제 부담이 매우 낮아 경쟁 구도가 본질적으로 불균형적
- 안정성·사전 통제를 중시하는 SEC와 달리 CFTC는 효율성·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체계로, 위험을 공개하는 방식에 의해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특히 거래소의 매매·보관·중개·결제 기능을 수직 통합한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전통 증권시장의 분산 장부·외부 검증 체계와 비교 시 리스크 매우 높음

DeFi 시장 TVL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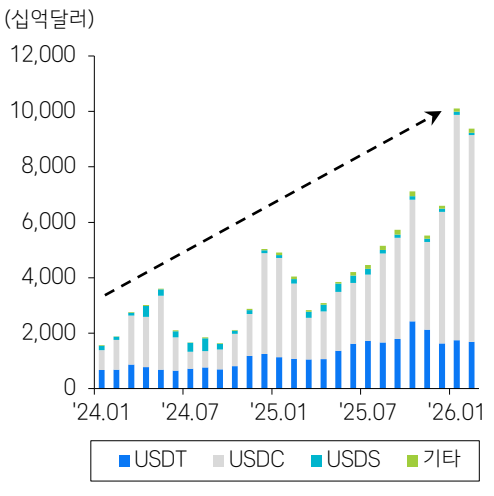
참고: Staking 기준. Borrows·Pool2·Vesting 제외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가상자산 시장 내 대출 잔액



자료: Galaxy research, 삼성증권

스테이블코인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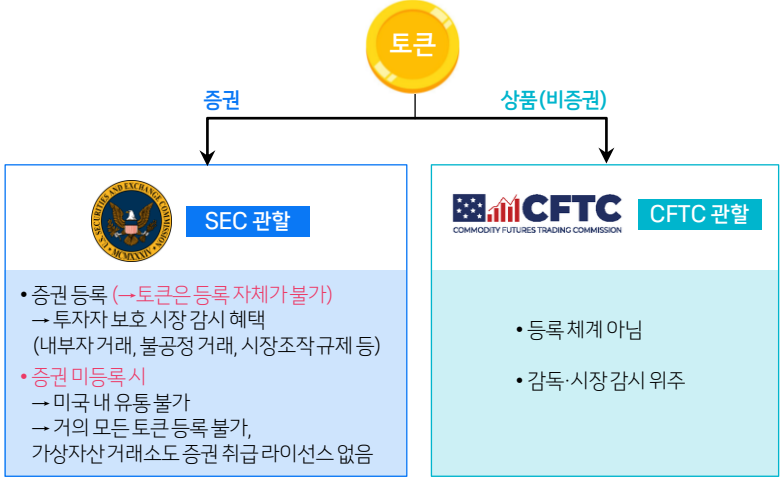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미국, Clarity Act 논쟁

코인은 본질적으로 SEC 관할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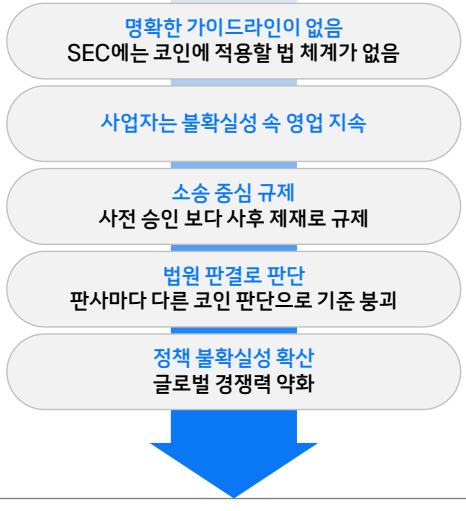
- 가상자산은 구조적으로 CFTC관할로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SEC는 본래 투자계약증권·증권 전용 감독기관으로 코인 규제와는 제도적 성격이 다름
-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배당·지분·발행 주체가 없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SEC 관할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한 구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관할로 지정된다면, 사전 규제 대신 소송 중심 사후 대응만 반복하며 사실상 규제 공백과 시장 방치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 높음. 해당 구조는 법리 불일치와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며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

토큰의 증권/비증권 구분



자료: 삼성증권

SEC 관할 가상자산 규제의 구조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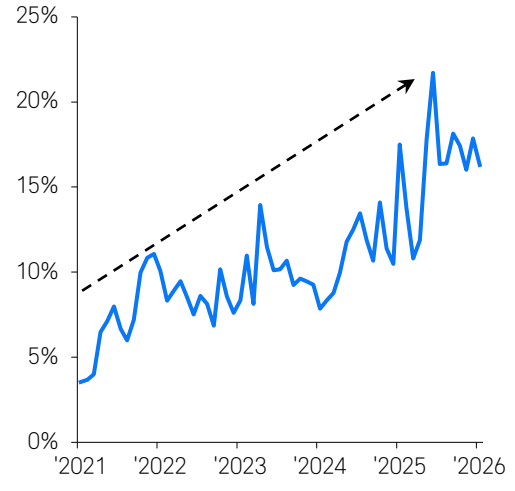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미국, Clarity Act 논쟁

글로벌 추세는 '제도권에 편입된 개방'

-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고 탈중앙 구조를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규제나 독점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보유
- 가상자산을 강경 규제함으로써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손해 ① 정부: 달러 패권 약화 ② 거래소 : 해외 이전 ③ 투자자 : 보호 공백 등
- 글로벌 정책 흐름은 '제도권에 편입된 개방'으로 수렴 중. 방향성은 ① 은행·증권과의 구조적 연계 ② DeFi 무법 지대 종료 ③ 토큰화의 공식 금융 인프라화 등
- EU의 MiCA 체계는 가상자산을 은행 ·증권과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편입한 모델. 단일 라이선스·자본 요건을 통해 제도권 개방 구조를 법률로 완성
- 싱가포르는 금융 당국 주도의 감독·라이선스·은행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실전형 금융 허브 모델. 거래·보관·결제·커스터디를 전통 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결

탈중앙화 거래소 (DEX) 비중



자료: The block, 삼성증권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음 (Crypto is borderless)

자료: 삼성증권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글로벌 추세

국가	모델	특징
EU	**포괄적 법제화 + 단일시장 통합:** • MiCA 법안– 스테이블코인 자본 요건, 백서 의무, 감독기관 명확화, EU 전역 패스포트	• 명확성 매우 높음 • 자본 요건 큼 • 은행과 경쟁 허용
싱가포르	**통제된 개방** • MAS 라이선스 • 개인 투자 보호 강조	• 금융 허브 유지 전략 • 혁신 허용 + 리스크 통제
일본	**강한 규제 + 제도권 편입:** •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 • 고객 자산 100% 분리 보관	• 소비자 보호 최우선 • 높은 안정성 • 혁신 속도 느림
홍콩	**정부 주도 전략 개방:** • 라이선스 기반 • 기관 친화 정책	• 글로벌 허브 전략 • 위험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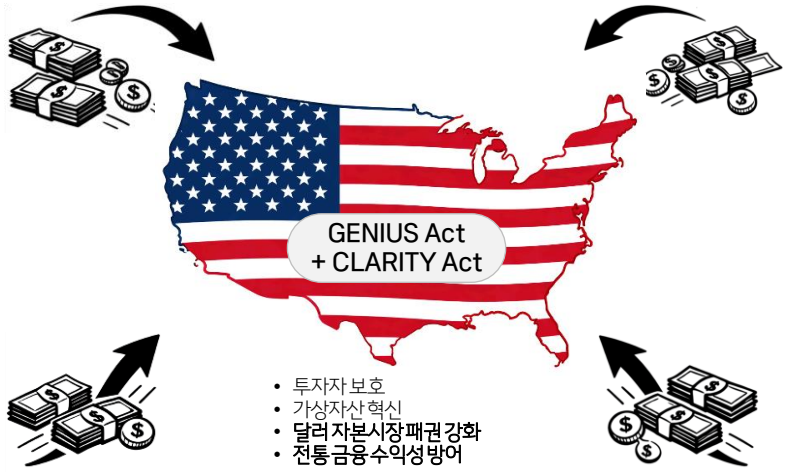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미국, Clarity Act 논쟁

미국의 개방은 국가 전략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 높음

- GENIUS Act 등 사례를 보면, 미국의 핵심 전략은 달러 패권 강화와 자본시장 지배력 강화. Clarity Act 논의에서도 유사한 국가 전략 중심 접근이 이어질 것
- 미국은 산업 육성보다 국가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토큰화 자산과 온체인 결제를 활용해 글로벌 유동성을 자국 금융시장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설계할 것
- 글로벌 흐름 속에서 미국은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혁신 유지에 더해 달러·자본시장 패권 강화와 전통 금융 수익성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
- 향후 규제 체계는 SEC·CFTC 등 감독 기능을 분업화하고, 자산 성격별로 차등 관리하는 혼합형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 높음
- 현실적 절충안으로는 은행이 자금 ·리스크를 통제하고, 크립토 플랫폼이 거래 ·운용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핵심 전략: 달러 패권 강화와 자본시장 지배력 강화



자료: 삼성증권

절충안: 기능 분업

은행/ 신탁/ 브로커딜러

- 준비금·현금 T-bill 보관
- 자금세탁 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 제재 준수(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 분리보관/파산격리(고객자산 보호)
- 결제 레일(계좌이체/ACH)
- 자본/유동성 규제

크립토 플랫폼/ 거래소

- 유저 인터페이스(UI·UX)
- 거래 중개, Brokerage
- 예치 ·스테이킹 상품 설계
- 가격·유동성·리스크 관리(마진, 청산)
- 온체인 결제·정산 인터페이스
- 수수료/스프레드/구독 수익화

자료: 삼성증권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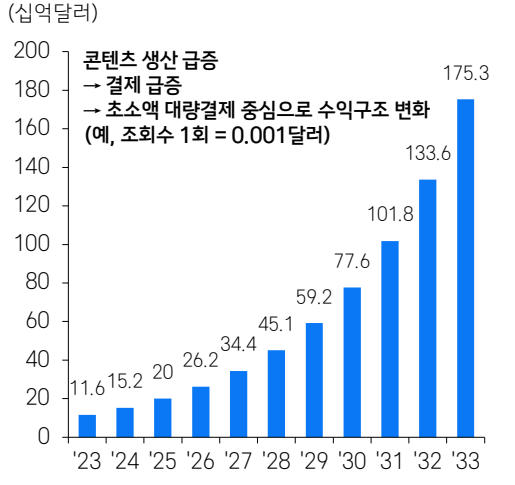
AI Agent

AI Agent

블록체인만이 대응 가능

- AI Agent 경제가 본격화될 경우 초소액·고빈도·자동 결제가 폭증하면서, 기존 카드·계좌 기반 금융망은 처리 속도·비용·자동화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 보유
- AI 간 거래와 B2A(Business to Agent) 구조가 확대되면 인간 개입 없는 결제·정산·검증 체계가 필수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블록체인이 유일
- 대규모 AI 거래 환경에서는 수작업 중심 AML·KYC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고, 거래 추적·감사가 자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만이 규제 대응 수단으로 기능할 것
- 생성형 AI 확산으로 콘텐츠·API·데이터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초소액 정산과 글로벌 동시 처리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결제망의 전략적 중요성은 급속도로 확대되는 중

글로벌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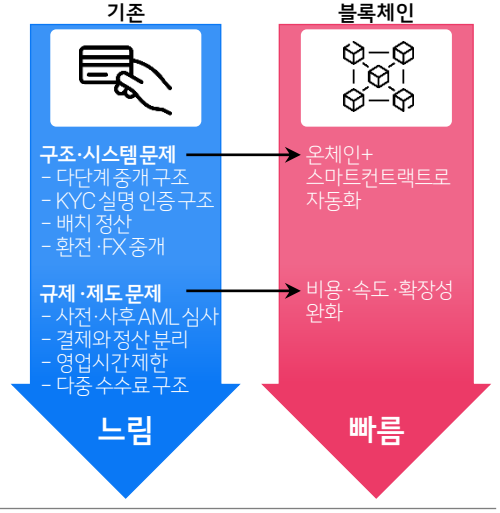
자료: Dataforest, 삼성증권

B2A(AI Agent 대상 비즈니스) 사례

- 마케팅/영업의 대상이 인간→AI Agent로 이동
- 사람이 아닌 Agent가 읽기 좋은 콘텐츠/구조/메시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참고: B2A, Business to Agent
자료: Limy, 삼성증권

기존 결제망 vs 블록체인 결제망



자료: 삼성증권

AI Agent

Layer별 구분, 투자 인사이트

- AI Agent 경제는 Application·Data ·Communication · Payment ·Settlement ·Compute의 기술 레이어로 구분.
- AI Agent 확산은 Compute(연산), Payment(결제), Settlement(정산) 인프라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치 상승으로 직결**
- Compute Layer는 AI Agent 작동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계층. GPU 기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핵심 기술 기반을 이룸
- Payment layer는 agent 간 거래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계층. API 호출 단위의 자동 결제와 초소액 거래를 지원하는 결제 인프라
- Settlement layer는 거래 결과를 기록하고 정산하는 계층.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마트컨트랙트가 활용되며 거래 기록의 검증성과 투명성을 확보

Layer 별 대표 프로토콜, 투자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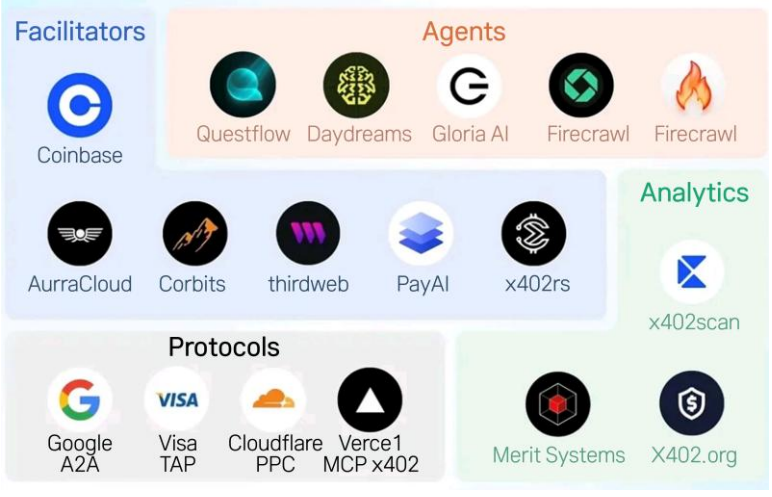
Layer	대표 프로토콜/기술	현실적 투자 대상	대표 사례
Compute	• Akash network • Render Network • Bittensor	AI 인프라	NVIDIA, Microsoft, Amazon
Payment	• X402 (Coinbase) • Paymaster (ERC-4337)	결제 인프라	Coinbase, Circle
Settlement	• 정산 생태계 기준: ERC-8004, ERC-4337 • 정산 인프라: Ethereum, Solana	스마트컨트랙트 체인 (메인 블록체인)	Ethereum, Solana
Application	• LangChain Agents • AutoGPT • OpenAI Agents SDK	AI 플랫폼	Microsoft, Google, Salesforce
Data	• Chainlink Data Feeds • The Graph • Pyth Network	데이터 인프라	Chainlink, The Graph, Pyth Network
Communication	• A2A (Google) • MCP • OpenAI Function Calling	플랫폼 기업	Microsoft, Google

자료: 삼성증권

x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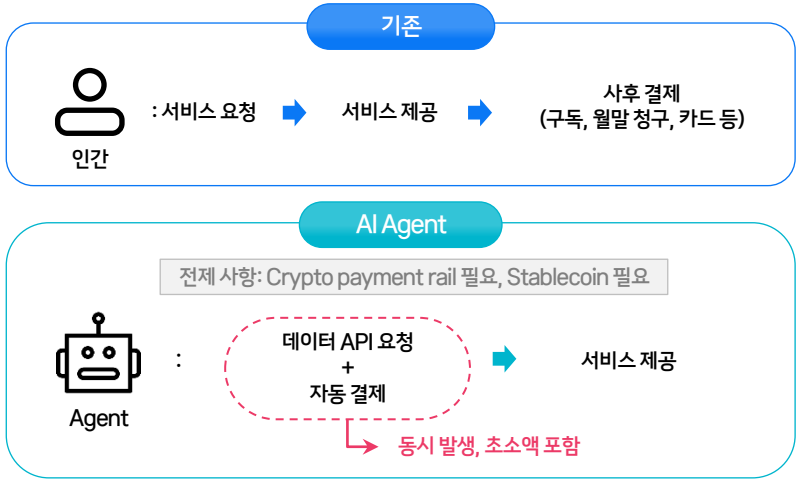
- x402는 HTTP 통신 단계에서 **결제 요청과 지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Agent 환경에 특화된 프로그램형 결제 프로토콜
- X402는 API·데이터·연산·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자동 결제를 가능하게 해,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결제 확산 이후에는 에이전트 지출을 통제하는 Policy OS, 유료 서비스 탐색을 담당하는 Discovery Layer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됨
- 동시에 ERC-8004(이더리움) 기반 신원 체계와 x402 결제 이력을 결합한 신뢰·평판 레이어가 구축되며, 에이전트 단위의 리스크 관리 구조로 발전함
- 해당 레이어가 결합될 경우, AI Agent가 스스로 벌고 쓰며 계약하는 자율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블록체인이 핵심 결제·정산 레이어로 자리 잡게 될 것

x402 기반 AI 결제 생태계 맵



자료: Hashed, 'The Crypto Rail on an AI Train: x402'

x402 구조



자료: Uniconlabs, 삼성증권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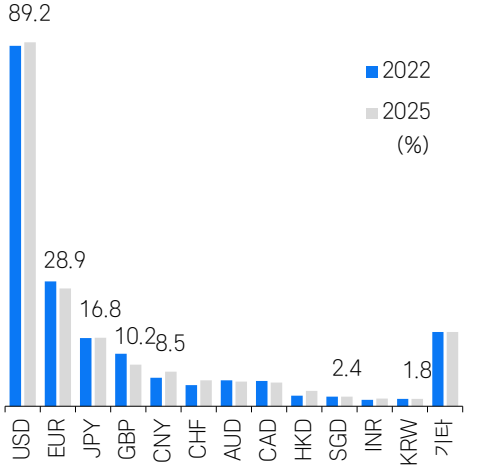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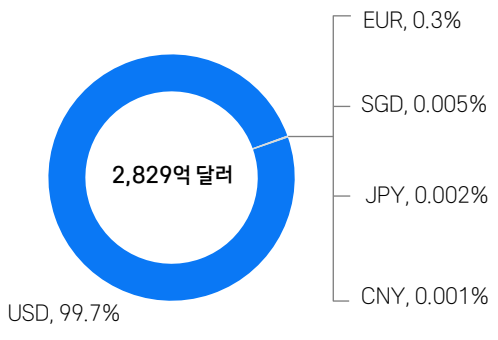
-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의론 존재 ① 기축 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의 경쟁 열위 ② 이미 고도화된 내수 결제 인프라가 존재함 등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수단이 아니라 온체인 금융 및 정산 통화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조를 좌우할 핵심 요소
- 특히 가상자산·토큰화 경제에서 결제 기준 통화가 달러로 고착화될 경우 통화주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수적**
- AI Agent 도입 등으로 블록체인 결제망이 표준이 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지 못하면 한국만 상대적으로 느리고 비용이 높은 전통 결제망에 묶이는 구조적 열위에 직면할 수 있음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원화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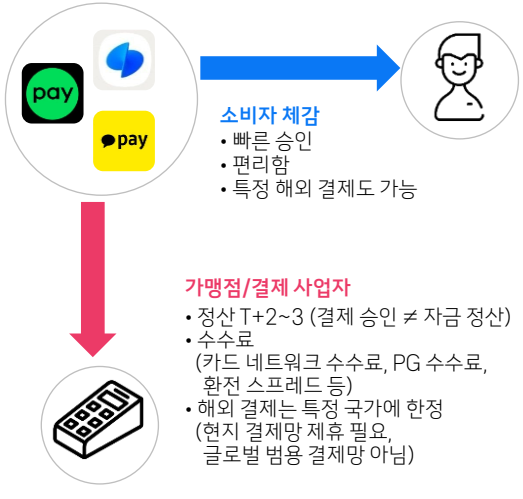
참고: 4월 기준 일평균 거래량(중복 거래 제외 순거래 기준), 전체 거래 대비 비중. 이중 집계로 합계 200%
자료: BIS, 'OTC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25', 삼성증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통화별 비중



참고: 2026년 2월말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고도화된 한국 결제, 사용자 편의성은 높으나 결제 인프라는 기존 금융망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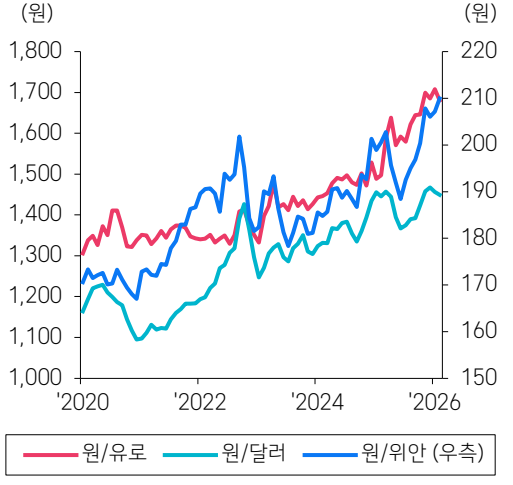
자료: Uniconlabs, 삼성증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현실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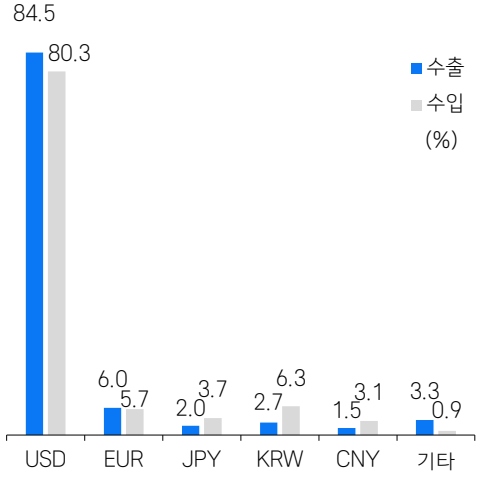
-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원화 비중은 1.8% (이 중 집계 감안 시 실제 영향력 0.9% 수준)
- 한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이 약 3% 수준임을 감안 시, **한국 원화의 국제 통화 영향력은 경제 규모 대비 제한적**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최소 원화의 글로벌 외환 거래 영향력 수준(0.9%)에 도달해야 통화주권 보호가 가능할 것. 한국 수출액 비중(3%)은 이상적 목표 수준
- 해당 비중을 2025년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830억 달러에 적용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약 26-87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필요.
  이는 2025년 한국 수출의 약 0.8%, 한국 M2(광의통화)의 약 0.2% 수준에 해당

원화 환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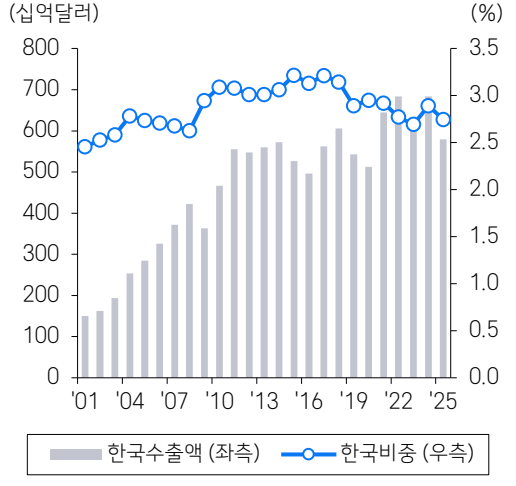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2024년 결제 통화별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세계 수출액 대비 한국 수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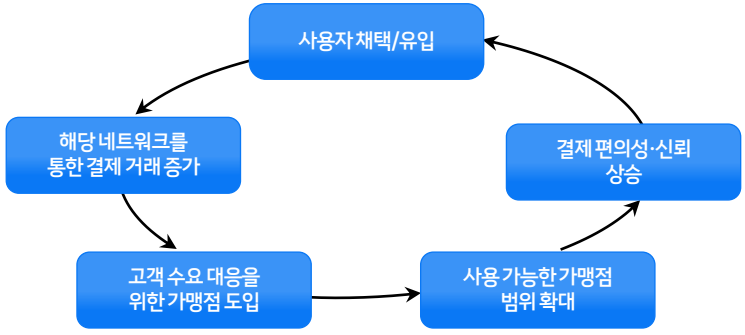
참고: 2025년은 10월 기준
자료: K-stat, IMF, 삼성증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직 늦지 않았지만, 속도전이 중요

- 지급결제 시장은 강한 네트워크 효과와 습관적 사용이 결합된 구조로 한번 형성된 결제 인프라는 쉽게 변경되지 않은 락인 특성을 보임.
-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부 디지털 자산 거래와 크로스보더 송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결제 시장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거나 습관화로 정착하지는 못함
-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선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도입 시 빠르게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될 가능성 존재
-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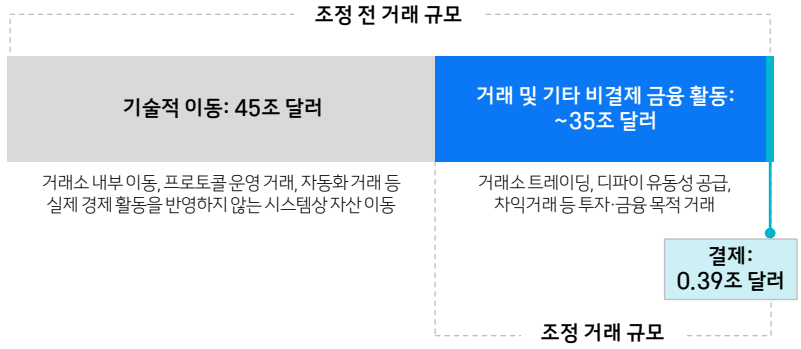
결제시장 네트워크 락인 효과



→ 결제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면시장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이 상호 강화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이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과 초기 채택 의존성이 나타남

자료: BIS, 'Innovations in retail payments', 삼성증권

유형별 연 환산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추정)



→ 온체인 거래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 이동과 금융 거래로 실제 상품·서비스 결제는 제한적

자료: McKinsey & Company, 'Stablecoins in payment: What the raw transaction numbers miss'

도입 전제사항 1) 제도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핵심 전제는 제도화, 발행 인프라, 사용처 확보. 인프라는 이미 상당 수준 갖추고 있으나 제도화와 실제 사용처는 아직 제한적
- **제도화 측면에서 글로벌 추세는 발행 주체 제한보다 준비 자산 관리, 상환 안정성, 감독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둠. 발행 보다 리스크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구조**
- 하지만 국내 논의는 발행 주체 제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 특히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세

구분	발행 주체 규제	리스크 관리 규제
미국 (GENIUS Act 등)	• 은행 • 비은행 핀테크 (라이선스 필요) • 주(州) 신탁·수탁사	• 100% 준비 자산 • 준비 자산 요건 규제 • 실시간 상환 • 공시 및 감사
EU (MiCA 법안 등)	• 은행 • 전자화폐기관(EMI) • 기타 인가 법인	• 1:1 준비 자산 • 상환 보장 • 준비 자산 보관 규정 • 감독기관 승인
일본 (자금결제법 등)	• 은행 • 신탁 회사 • 자금 이체업자	• 100% 준비 자산 • 신탁 구조 활용 • 상환 의무 • 금융 당국 감독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안 등)	• 은행 • 비은행 핀테크	• 100% 준비 자산 • 5영업일 내 상환 • 자산 분리 보관 • 정기 공시

자료: 삼성증권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발행 주체 규제

논의되는 모델

1. 은행 직접 발행
2. 은행 지분 참여 모델 (예,50% 초과)
3. 컨소시엄 모델
4. 비은행 발행 허용

→ 은행 및 금융 당국은 은행 중심 모델 선호

→ 가상자산/핀테크/플랫폼업계는 비은행 발행 허용 요구

→ 갈등 발생

리스크 관리 규제

감독 구조
- 금융 당국 감독 체계
- 발행기관 인가(라이선스) 체도
- 준비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준비 자산 규제
- 100% 준비 자산 유지
- 현금 등 고유동 자산 보유 중심
- 준비 자산 분리 보관
- 정기 공시 및 감독

상환 규제
- 이용자의 액면가 기준 상환권 보장

→ 규제 방향성 일정 수준 합의

→ 글로벌 규제 프레임과 유사

자료: 국회,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발의 법안 및 정책 논의 종합, 언론 보도, 삼성증권 정리

도입 전제사항 2) 사용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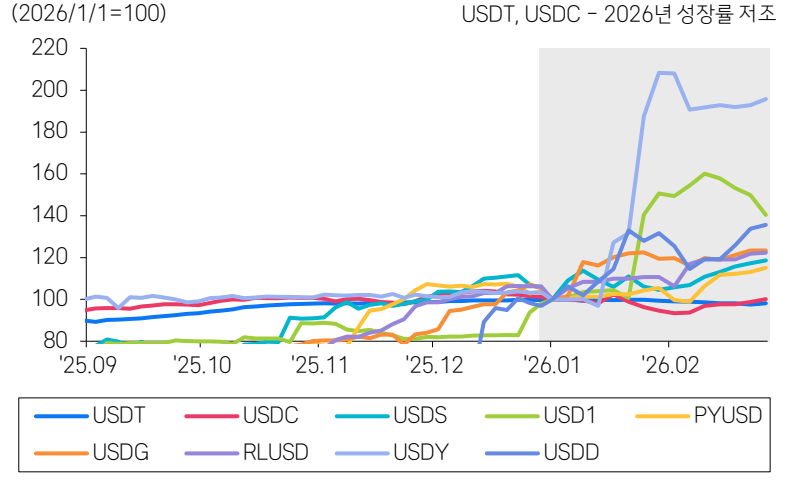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처가 필요. 기존의 비효율을 크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수익 구조가 있어야 실질적 수요가 형성 될 것
- USDT, USDC외 후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성장 전략은 기관 금융·RWA ·DeFi ·거래소 등 금융 네트워크에서 먼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 이후 해당 금융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이동을 담당하는 정산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유동성을 축적하고, 결제 시장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
-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유사한 전략이 유효할 것: 정산 네트워크 구축 → 유동성 구축 → 금융 인프라 형성 → 결제 확장
  그러나 국내 논의는 정산 네트워크 구축(거래소, DeFi 등)보다는 마지막 단계인 결제 확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스테이블코인 생존전략 분류

구분	주요 스테이블 코인	전략 및 특징
USDT	USDT	• 거래 유동성 유지 • 유통 채널 극대화
USDC	USDC	• 규제 친화 금융 인프라 • 제도권 금융기관 파트너 • 온체인 결제 인프라
기관 금융	PYUSD, RLUSD, USDG, EURC, AUDD	• 은행·핀테크·결제 네트워크 기반 • 기존 금융기관 및 결제 플랫폼과 통합 • 주요 사용처: 기업 결제, 기관 간 정산
RWA (Real World Asset)	BUIDL, USDY, USDTB	• 미국 국채·MMF 등 실물 금융자산 기반 • 안정성과 수익률 제공 • 주요 사용처: 기관 투자, 거래소 담보
DeFi (Decentralized Finance)	USDS, GHO, AUSD, satUSD	• DeFi 프로토콜 기반 발행 •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 주요 사용처: 대출, 담보, 유동성 공급
거래소	USD1, HUSD	• 거래소 유동성 확보 중심 전략 • 거래 페어 및 거래소 자금 이동 활용

자료: 삼성증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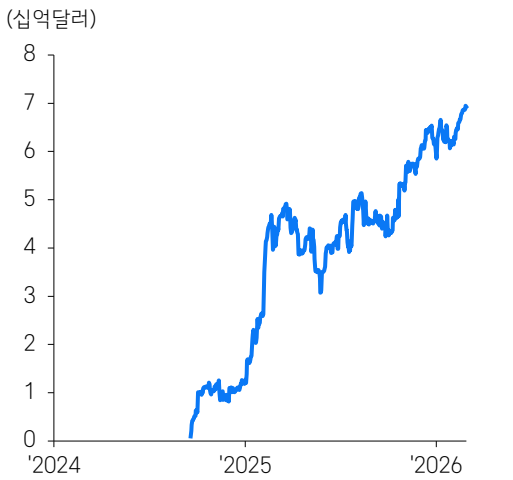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USDS

시가총액	69.3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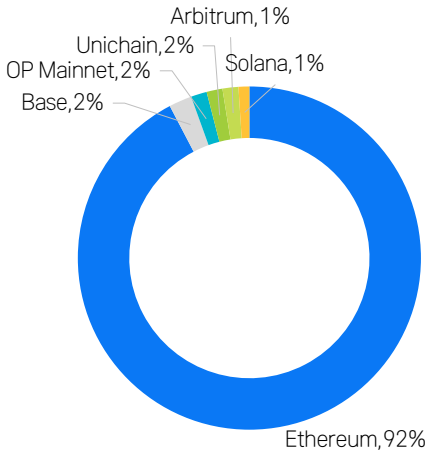
- USDS는 SKY 생태계의 핵심 스테이블코인으로 담보 기반 구조를 유지하며 DeFi 대출, 유동성 공급, 온체인 자금 이동 등에서 사용
- USDS 발행사 SKY는 탈중앙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으로 시작한 DeFi 프로토콜로, 기존 MakerDAO 생태계를 리브랜딩해 온체인 금융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
- SKY는 Saving Rate 구조(USDS 예치 시 온체인 이자 지급)를 통해 USDS 보유 및 예치를 유도하며 DeFi 내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 대출, 담보, 유동성 풀 등 DeFi 금융 네트워크에 자연 발생 거래량을 만들고 예치금(수요)를 쌓음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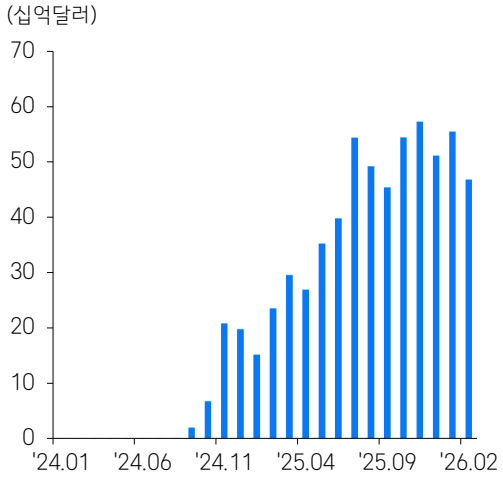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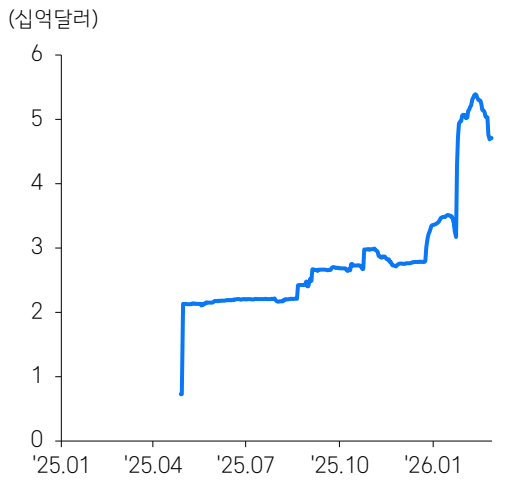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USD1

시가총액	47.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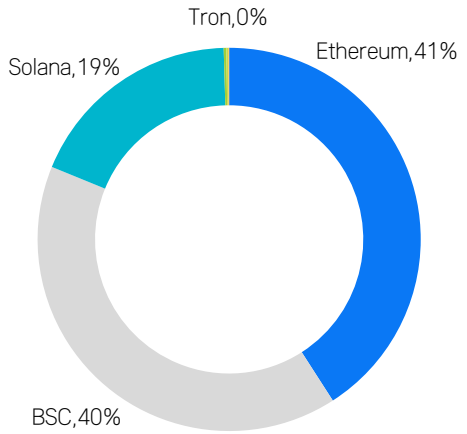
- USD1은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준비 자산으로 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 USD1의 발행사 World Liberty Financial은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프로젝트 창립에 참여
- USD1은 대형 거래소 상장과 기관 투자자 참여를 통해 초기 유동성을 빠르게 확대. 이후, 결제 및 DeFi로 확장을 시도 중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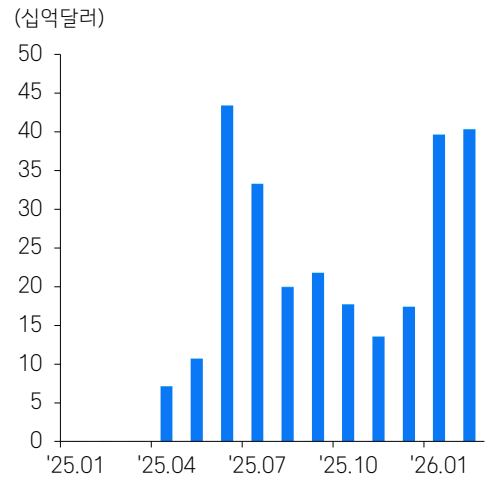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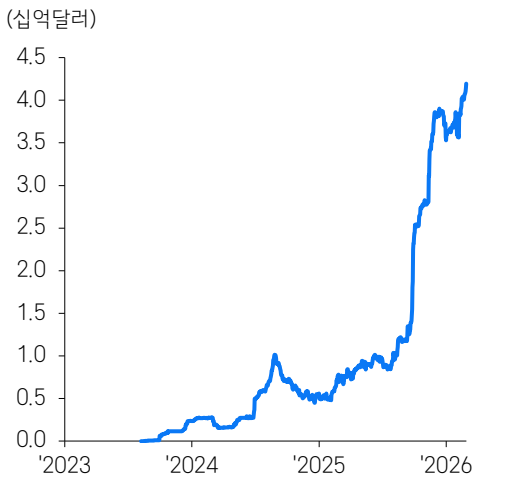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PYUSD

시가총액	42.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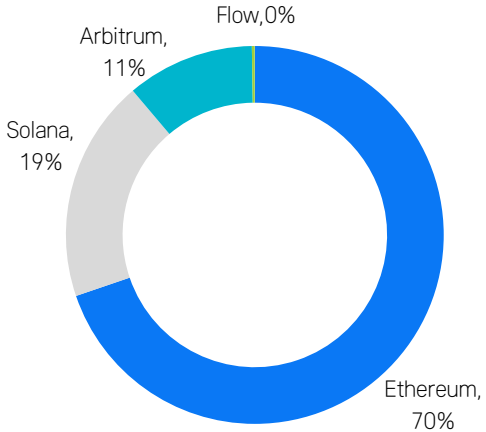
- PYUSD 발행사 Paypal은 글로벌 디지털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결제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결합해 스테이블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 중
- PYUSD는 PayPal 지갑과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등, 기존 결제 및 핀테크 금융 네트워크 기반으로 유통 확대를 추구
- 특히 거래소 및 블록체인 생태계와 연동해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온체인 금융 및 자금 이동 정산 인프라로 활용도를 높임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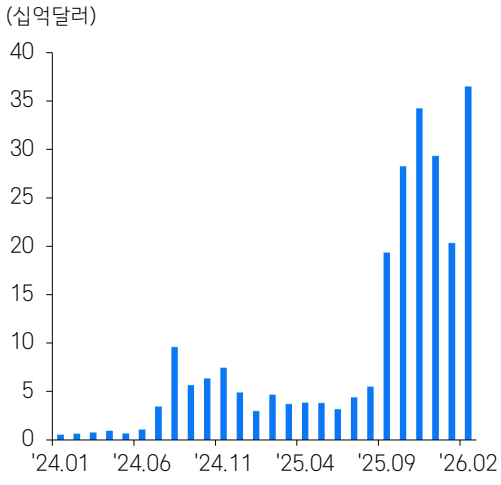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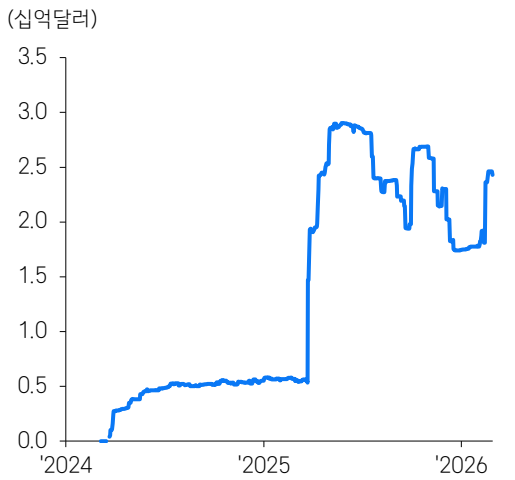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BUIDL

시가총액	24.3억 달러	BUI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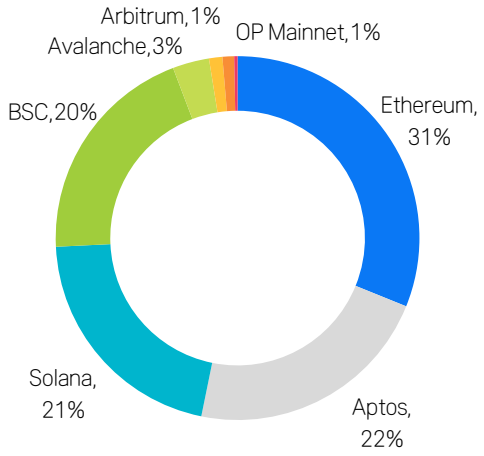
- BUIDL은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로, 블록체인상에서 기관 투자자가 달러 유동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BUIDL의 발행사 BlackRock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토큰화 금융상품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 운용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
- BUIDL은 국채 기반 수익형 자산 구조를 통해 DAO, 기관 투자자, 거래소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자산으로 확산을 추진중

시가총액 추이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7일간 발생한 이자 수익률 (연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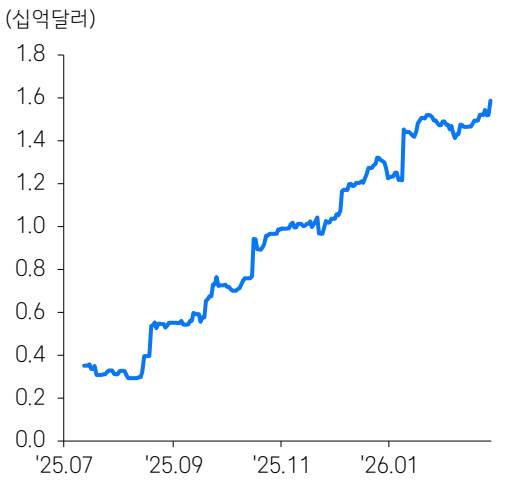
자료: RWA.xyz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USDG

시가총액	15.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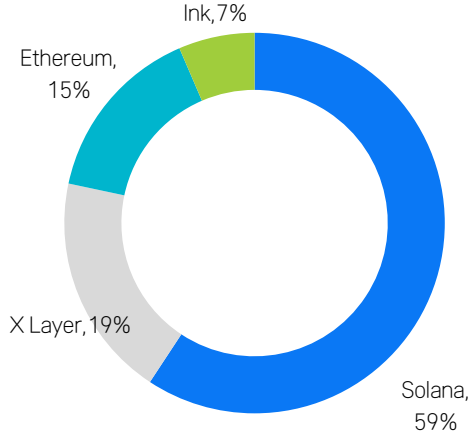
- USDG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유통을 확대
- USDG 발행사 Paxos는 미국 규제 기반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해 규제 준수형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
- USDG는 싱가포르 규제 관할 및 EU MiCA 등 규제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을 확보
- GDN(Global Dollar Network)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파트너에게 리워드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유통 파트너를 단순 이용자가 아닌 '판매 조직'으로 전환
- 거래소 상장에 의존하기보다 결제, 커스터디, 카드, PG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연결해 스테이블코인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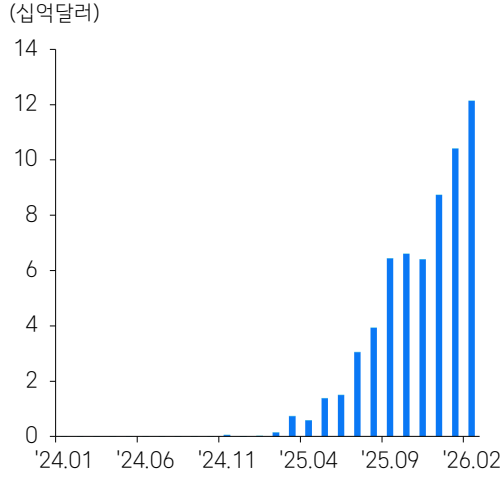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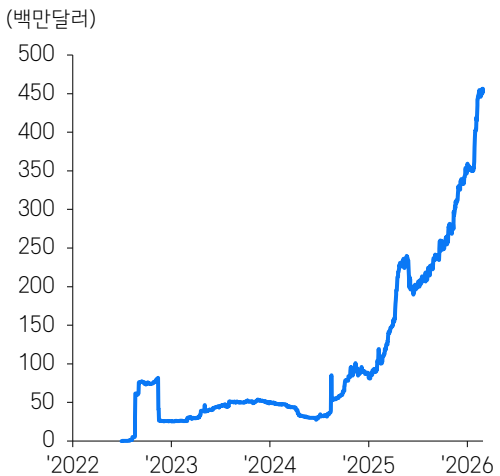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EURC

시가총액	4.6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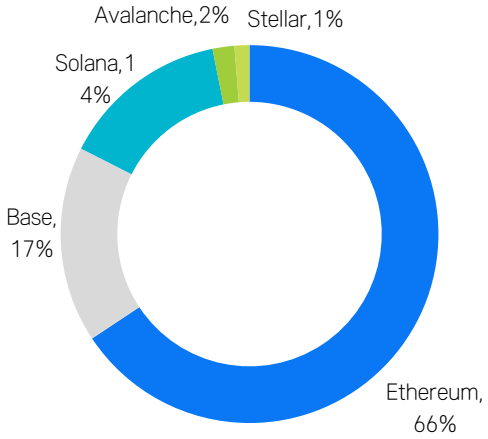
- Circle이 발행하는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 유럽 규제 체계(MiCA)에 맞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을 확보. 거래소, 제도권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유로 기반 온체인 정산 자산으로 확산을 추진 중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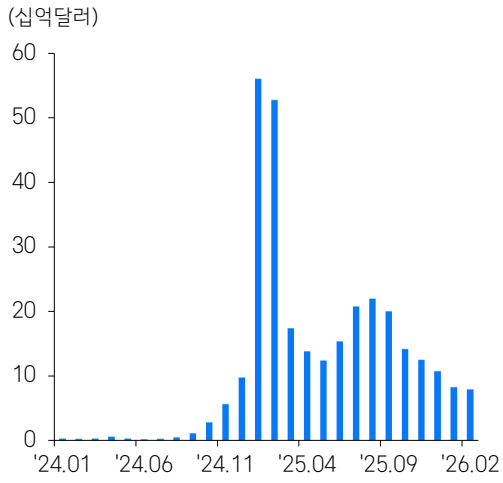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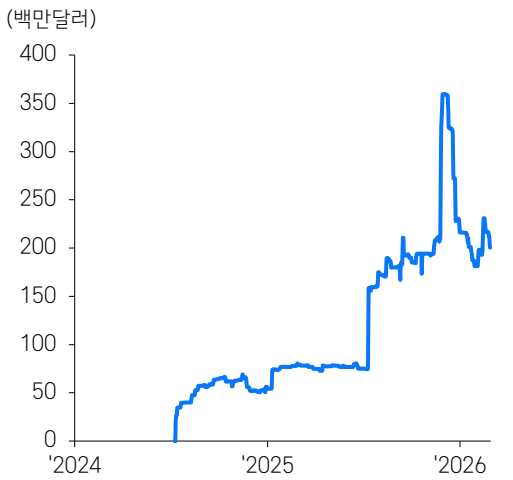
자료: RWA.xyz, 삼성증권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AUSD

시가총액	2.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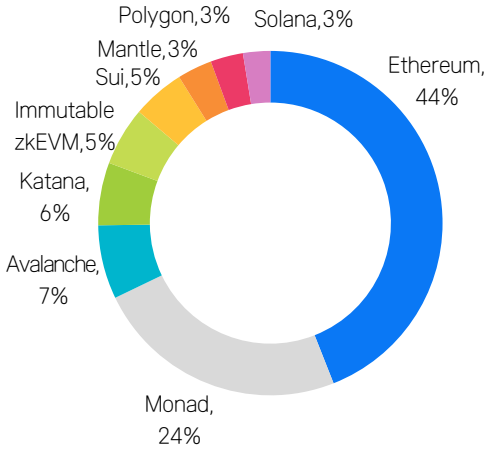
- AUSD 발행사 Agora Finance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르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구
- AUSD는 특정 플랫폼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르 제공해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 중
- 특히 API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지갑, DeFi 프로토콜, 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이 쉽게 AUSD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며 온체인 달러 유동성을 확대 중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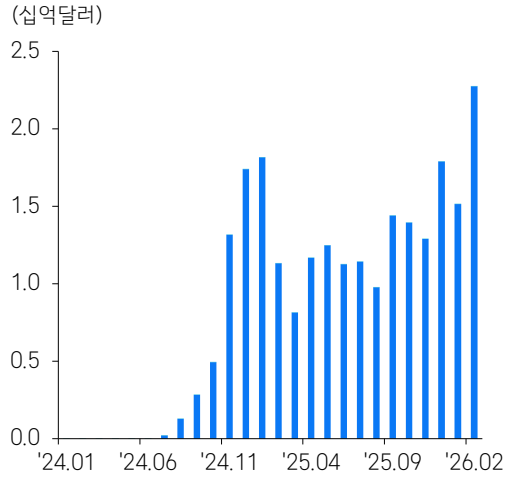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자료: RWA.xyz,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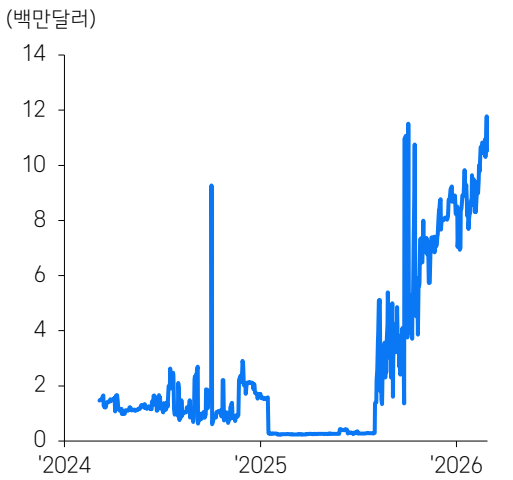
원화 스테이블코인

후발 주자 스테이블코인: AUDD

시가총액	0.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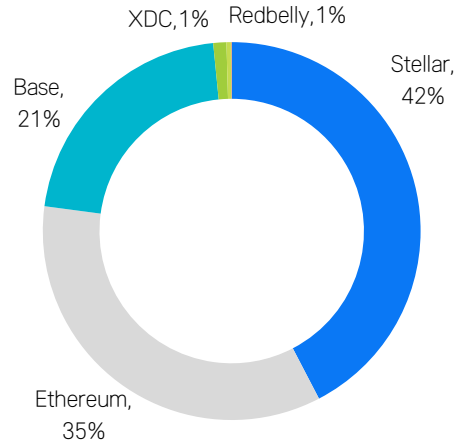
- Novatti Group이 발행한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 Novatti Group은 호주 기반 핀테크 기업으로 디지털 결제, 송금, 카드 발급 등 금융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 중
- 호주 금융기관 및 결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UD 온체인 유동성을 확보.
- 지역 통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결제·송금·핀테크 결제 서비스 등 기존 결제 인프라와 연계해 AUD 기반 정산 자산으로 활용도를 확대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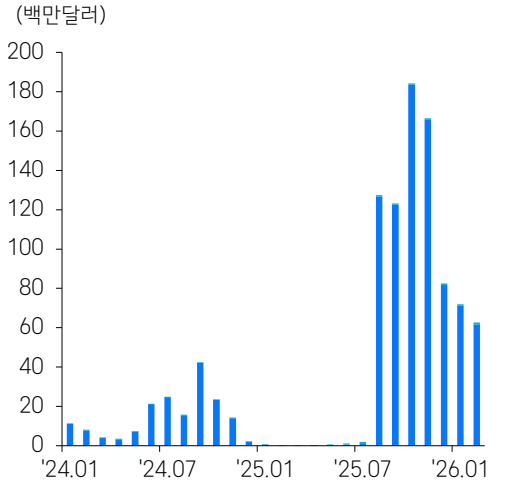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유통 점유율



참고: 2026.3.6 기준
자료: DefiLlama, 삼성증권

월간 전송 규모



자료: RWA.xyz,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